



Magnetic Overdenture



최창환*, 양홍서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 특히 하악 치아의 상실은 치조골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한다. 하지만 악골에 건강한 치주인대가 있는 것이 치조골의 형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Overdenture는 잔존치아나 치근을 남겨두고 그위에 제작하는 의치의 형태이다.

치아를 모두 발거한 경우 총의치는 치아상실로 인한 감각능력의 저하나 치조골흡수, 교합력감소, 구강기능 저하등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반해 Overdenture는 치조골의 보존, 환자의 정신적인 안정감, 예후가불량한 치아의 치관대 치근비의 개선으로인한 예방적 장기보존, 잔존치아의 치근막의 감각수용기능에의해 우수한 저작기능의 향상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Overdenture에는 부가적인 유지와 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다양한 attachment system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유지장치 Studattachment, Bar attachment, Magnetic attachment가있다. 이중 Magnetic attachment는 의치제작에 이용시 결과에비해 술식이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들며, 자력에 의해 충분한 유지력을 얻을수 있으며, 바람직한 치관치근비율에의해 치아에 동요를 일으킬가능성이적다. 이에 본증례에서는 완전무치악환자와 부분무치악 환자에서 magnetic attachment를 이용하여 의치의 유지 및 지지와 안정성을 증대시킨 수복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